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 서종로 한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08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2월 20일(음력 11월 1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1

오직 팔랑개비대 하나만 쥐고 다닐 수 있어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같이 있다면 같이 있는 거고, 혼자 있다면 혼자 있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법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연화장불(蓮華藏佛)' 이라면 아주 최고의 한울을 꿰어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에 또 더 큰 은하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하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소속된 은하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은하계 속에 있는 우리 생명력들은 사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척한 데서 사는 것이냐 물에 사는 것이냐 한 부분으로 친다면, 또 나무를 쫓아다니는 한 부분으로 친다면, 날아다니는 것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것, 이렇게 네 부류로 치는 이 속에서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화(化)해서 낳는 네 가지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 한데 합쳐진 마음, 즉 공존하는 그 주장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사왕천(四王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지, 총 합해서 지도를 하는 자가 사왕천이라고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름해서 붙였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갈 수 있고 광력이나, 전력, 자력, 여러 가지 힘이 서로서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난다면 원심력을 얻는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길 했을 겁니다. 원심력을 얻는다면 그 원심력은 어떡해서 원심력이 될까? 그리고 사무사유(四無所有)라는 그 뜻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들의 마음이 틀어 안 붙어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사유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마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영령들, 그 처절한 영령의 참혹한 일들, 이름해서 부를 수 없는 일들, 또 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영령들, 즉 산 사람한테 침입해서 악이면 악, 선이면 선 그렇게 침입을 해서 인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팔자 운명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이름이 속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자 속 운명 속 업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 사왕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왕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다 놓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나는 놓을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고 나는 그러죠. 그게 아주 이리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다고들 그러지만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지금도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교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러 번 자유자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하다면 모든 것이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여러분의 한마음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빛보다 더 빠른 누진통(彌盡通)으로 하여금 천체무진통(天體無盡通)처럼 광력이나 전력에 종합된 그 에너지는 바로 저 은하계로 통하게 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의 뜻, 무(無)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안테나는 근본의 전체 통신을 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즉 말하자면 심안이 밝아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감도 없는 육신통, 이것이 천백(千百)으로 화(化)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심을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짚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 데...'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는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딱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잘못 쓰면 이 몸통이 속에 업식으로 응축됩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통이에 응축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

역할을 하죠. 태양이 위로는 근본 별성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자라게끔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도는 어떻게 해서 구정도라고 그러냐 하면 은하계에 있는 혹성들만 해도 이거는 삼심(三心)에, 삼심! 이렇게 하는 건 개별적인 것이 되지만, '삼세심(三世心)' 하는 것은 구정도가 다 들어갑니다. 혹성이 다 포함되죠. 혹성 외에 있는 것은 구정도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 구정도가 소속돼 있는 건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죠. 그건 왜냐? 힘은 각자 강하지만 우리 생명체들은 전부 별성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면 이승에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잘못된 마음들이 한데 모인다면, 지금도 한데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살면서 강해나 강도나 도둑,

제난을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 혹성 하나에 소관된 문제입니다. 세계를 세계라고 하지만 구정도에서 요거 하나 소속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정도에 소속돼 있는 거와 똑같은 구정도는 또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음은 직접 통합니다. 이 불성 자체가.

옛날 얘기 한마디 하죠. 옛날뿐만 아니라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잘 파악해서 들으세요. 한 사람이 훈련 대장으로서는 권위가 당당하고 무관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어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권력은 있으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경솔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효도가 없어, 또 형제에게도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

어졌는데 아,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오백년을 지내도 독사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 그냥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업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촉각이나 시각이나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심안의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 이게 독사뱀이 돌이 사랑을 하는지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몰라. 자기 모습이 흉악한지 자기한테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리고선 그 속에서 또 낳게 되고, 죽으면 또 뱀이 되고, 잡아먹히고, 또 쫓기고 밟혀죽고 찢겨죽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식이 찢겨죽게 되면 또 어머니 애비가 그냥 독을 품고 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식은 죽고 이렇게 애틀아 말리면서 살기를 오백년을 살았다 이거야.

오백년을 살다보니까 하루는 어느 곁에 새끼들을 오물조를 넣어놓고는 다복하게 음식을 먹는데 웬걸, 산돼지들이 약조 뿌리를 캐먹는다고 그 땅을 막 파헤치는 동안에 뱀 소굴이 모두 벌거벗단 말이야. 그게 원수로다가 그렇게 됐으니가 이를 갈면서 너 잘 만났다 이력하고선 전부 죽었던 말이야. 전부 죽고 나서 독사, 즉 남편이 말이야, 자식, 부인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애처롭게 떠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혀! 영이 돼서 보니까 말야.

살 길이 없나 하고 휘적휘적 보다가 이제는 살 모사 굴로 들어갔다고. 그게 또 우연인가 아니야. 자기가 한 것대로 길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다 업식으로 만나서 업보로 인과로 됐으니가 자기를 끌고 간다는 게 나쁜 데로만 끌고 가는 거지. 그대 거기에서 살모사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장기를 들었던 말이야. 장기를 들었는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애비는 능구렁이가 되고, 살모사 새끼들은 애미를 잡아먹어야 구렁이로서의 모습을 바꾼다 이런 소리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잘 들어요,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살모사 속에 들어가서는 떠어 장기를 들어서 자식들을 넣어놓고 보니 아주 재롱도 잘 부리고 귀엽고 좋거든. 그런데 어느 날 오물조를 한 자기 새끼들이 제 애미를 잡아먹는단 말야. 먹고 자라,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대 가만히 보니 그 애미가 이 폭죽기의 독을 꼭 없애면서, 요즘으로 치면 그게 마취나 한가지지, 그 독을 딱 빼버리고 꼭 드러내워 있으니까 아 그냥 새끼들이 그저 너도나도 뜯어먹고는 또 자라요. 그렇게 뜯어먹는 그 광경이러니 빠따귀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고는 빠따귀는 빠따귀대로 깨미 때들이 또 와서 뜯어먹고 가져가는 그 광경! 그거를 다 보고 난 뒤에야 이제 그게 능구렁이가 된대요.

그걸 다 보고 난 남편은 너무 허무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술을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풀밭에 처어 기대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영영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스님이 들었어. 오백년이 지나고 벌써 삼만년이 지났다는 얘기가, 삼만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뱀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이거 거짓말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뱀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쥐새끼로 들어갔다면 쥐새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쥐새끼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도술원(兜率天)에서 열반을 하고 도를 통하시고서 저 도술원의 연화장불(蓮華藏佛)이 돼 가지곤 터어 보니까 아, 그 뱀에 연관이 돼 있거든. 우는 소리가 들리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살려준 그 고마움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대 보니까 아! 이거 그때에 인연이 이제서야 참회를 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생애 대해서 후회를 하네 참...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지.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열반 들렀을 텐데 그전에 아주 좋기만 하고 그게 사는 결론만 알았으니가 너무 좋지 않는데 스님한테 들릴 리가 있나. 그래서 그 소릴 듣고 옥황상제한테 한 찰나에 연락을 해서 참, 그 인연을 제도하러 내려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 구렁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말이야, 훈련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사람을 끌어오고 죽이고 재산 뺏고 그러던 것이 두



그림 · 최주현

무(無)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 없어요!

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보라, 맡겨 보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해 맞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 죽들 앉았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잠시 잠깐 웃고 즐깁 거러만 차라리 그게 뭐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의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참나찰나 닦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가 '구정도(九淨土)'라고 말을 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소속되어 있는 구정도들이 말이지. 지금 은하계가 있으면 은하계의 별들을 보호하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 태양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생(四生)입니다. 태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지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흙과 물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양과 바람은 아버지의

마직 이런 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또 이걸 비교해서 한번 말하죠. 여간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공적이 있어서 사람을 너무 못살게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추방을 시켜서 내쫓았던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앙심을 먹고서는 나쁜 놈들을 전부 모으는 거야. 오년이 되면 십년이 되면 모아가지고 서는 단결이 돼가지고는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들도 악이 있고 선이 있다면 악이 그렇게 선을 해치기도 해. 악과 선을 다 놓는 상태에는 하나의 주장자가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있는데, 그 주장자 밑에서 악과 선을 다루고 일하는 그 주모자를 해치게 되면 혼란이 오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령들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소소한 우리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하면, 정말 이 별성에서 싸움박질이 난다면 이것은 무슨 조그마한 하나만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 말이야. 마음세계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때는 파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라죽기도 하고, 굶어죽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란을 정돈하고 잘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한국에서도 대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

지를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스님 한 분이 잘 지을 돈, 시숫돈을 짊어지고는 공공하고 울러가는데 도둑들이 들이닥쳐서는 스님을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하니, 그걸 물리치고 스님도 살리고 돈도 빼앗아서 그 스님에게 다시 주었던 말이야. 그리고는 후미진 데 혼자 다시시지 말라며 잘 보좌해서 울러 보내곤 말을 타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야. 그대 그 스님은 무사히 절에 도착해서는 시숫돈으로 짊을 잘 지었지. 자기 생전에 늘어가면서 생각을 하니, 그리고 모든 게 자기한테 조건이 불리해. 그런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어른이 죽었던 말이야.

죽었는데,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냥이나 놔두면 좋겠는데 그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돼지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 이 소릴 잘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원망을 안 했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렇고, 자기 자신이 인연이라 그렇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렸으면 산돼지로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앙심을 먹곤 잔뜩 이를 가니까 산돼지밖에 될 수가 없거든.

한쪽은 산돼지가 됐고 한쪽은 독사지옥으로 떨어